

제8대 총장은 누구?

기호 1번 허향진 교수, 기호 2번 김부찬 교수
3일 공개토론 · 7일 상호토론 이어 9일 투표



허향진 교수



김부찬 교수

제8대 총장 재선거가 오는 9일 치러져 새로운 총장 후보를 뽑는다. ▶총장 임후보자 인터뷰 5면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고봉수 교수, 이하 총추위)는 지난달 26일 총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기호 1번 허향진(관광경영학과) 교수, 기호 2번 김부찬(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이 출마했다고 밝혔다. 기호는 지난달 27일 추첨에 의해 정해졌다.

이번 선거는 제주대가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를 위탁함에 따라 선관위 및 총추위 주

관 하에 치러지며 공개토론회는 오는 3일 오후 2시, 상호토론회 및 합동연설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 국제교류관에서 열린다.

선거 당일인 9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투표에 들어가 새 총장을 선출하게 된다. 투표는 제주대학교 체육관, 교육대학 2층 시청각실, 대학병원 2층 세미나실에서 실시한다. 총추위와 시선관위는 이를 위해 터치스크린 투표기와 선거인 명부기를 지정 투표 장소에 설치하고 대학 유권자들이 원활하게 전자투표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할 예정이다.

후보자는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내에 소형인쇄물과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허용된다. 총장선거는 후보자가 2명인 이유로 1차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2인을 선발해 교육부에 추천하게 된다.

선거인단은 지난 1일 선거인 명부 열람을 기준으로 교원 547명, 직원 321명 등 모두 868명이다. 직원들의 선거참여 비율은 지난 선거 때와 같이 교원 대비 11%를 반영한다.

교직원들은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지 않는데다 박빙의 승부가 겹쳐져 상호토론회가 끝나야 판세가 드러날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다. 정웅복 대기자

총장 임후보자 홈페이지

기호 1번 허향진 <http://hhj.jeju.ac.kr>

기호 2번 김부찬 <http://www.kimboochan.com>

최치규 총장직대 '결속·화합' 강조

최치규 총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27일 "오는 9일 총장임용후보자 재선거가 제주대학교의 새로운 출발과 비상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치규 총장직대는 이날 대학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

지만, 이번 재선거를 통해 학생들과 지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대학으로의 진정한 자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가슴 아픈 상처는 서로가 보듬고, 상심과 갈등이 있었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다시 모두가 손을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이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중요한 결정



의 날을 맞고 있는 만큼 연구와 교육 그리고 사회봉사에 대한 엄중한 표상을 다시금 고쳐 세우고, 지역거점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생회 선거 '부정행위'로 시끌 학생들, "부끄럽다" "진상규명하라"

총학생회, 총여학생회를 비롯한 각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가 지난달 17일 막을 내렸다. 그러나 선거운동본부의 과도한 선거운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업무 문제점 노출 등으로 학생들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만만치 않은 선거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선거관리 시행세칙에 따르면 원래 선거 당일인 17일은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17일 교양동을 비롯한 각 단과대학 건물에는 각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운동원들이 지나가는 학생들을 붙잡으며 선거여부를 묻고 자신들 쪽에 투표를 하게 하려는 활동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다. 게다가 선본의 운동원들이 차량을 통해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단과대학까지 태워주겠다는식의 회유도 있었다.

나재경씨는 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모 선거운동본부 운동원이 자신들을 뽑아달라고 부랴했다"며 "불법선거활동에 대해서 반성하기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법정대학의 현모씨는 "수업을 마치고 지나가는데 투표를 했는지 물어봤다"며 "투표했다고 하니 심지어는 누구를 뽑았는지 묻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선거기간 중 여러 선본들이 불특정학생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다.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번호를 통해서도 문자가 발송돼 신상정보가 노출된 학생들이 불쾌감을 드러냈다.

양은경(언론홍보 3)씨는 "선거와 관련하여 문자가 많이 왔는데 절반 정도는 모르는 번호였다"며 "내 전화번호가 너무 쉽게 알려진 것 같아 불쾌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7일 대학 인터넷 자유게시판에는 오경남 총학생회장 이 16일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신 사퇴한다는 글이 올

라와 과문을 남겼다. 16일 21시경 특정 선본의 운동원이 총학생회 사무실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것이 확인됨에 따라, 책임지고 사퇴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선거를 관리하고 진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다른 제재나 사후방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남호경씨는 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다른 학교는 선거에서 부정이 발생하면 선관위를 다시 뽑아 재선거를 치른다"며 "그러나 제주대는 부정이 일어나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섭(정치외교 4) 중앙운영위원장은 "선거당일 선거운동에 대해서 게시판을 통해서 알았다"며 "중선위원회의 열려 경고조치가 이뤄져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고 말했다. 박종건 기자

"재학생, 취직 길 뚫어라"

학생취업활동 뒷바라지 강화

직업능력개발원이 재학생 '취업 뒷바라지'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직능원은 재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기 위해 컨설팅지원과 기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확대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등 UCC 제작 비용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재학생은 물론, 학과 또는 학부 차원에서의 자율적인 취업지원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특성화 학과와 도내·외 기업과의 취업지원을 통한 시스템 구축과 우수인재 추천을 통한 취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벌인다.

이 사업은 재학생과 아직 취직하지 못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과 또는 전공별 방문단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최종 채용 등의 직업진로지도와 취업지원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대학에서 지원해 준다. 실질적으로 기업체 방문단에 여러 기업 정보와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학생취업 시 방문단 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년에 이같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탈락된 것은 실질적인 구직의 기회로 연결시키기 위해 좀 더 실용적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등 UCC제작'도 그 중 하나다. 개인, 학과별, 동아리 그룹별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직접 UCC로 제작해 취업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매년 취업특강 등을 통해 취업면접 요령이나 자소서 작성 등의 스킬은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나온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과별로 60만원을 제작비로 지원하며 편집비로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직업능력개발원 김문규 주무는 "신입생 실태조사 결과 50% 이상이 유망한 직업을 위해 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채용인원을 대폭으로 줄이는 등 치열한 취업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취업 경로를 많이 알려주어 새로운 분야 등에도 기회를 넓히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면안내

보도 2·3면

■ 주요 기사

-이러닝 시스템 개선필요
-총학생회 공약평가
-기숙사 이물질 혼입 발생
-대학 풍자 컷 '아라아라'

되돌아본 통합제주대 4면



통합제주대가 출범 2년째를 맞고 있다. 수많은 진통을 겪었던 양 대학이 이제는 하나의 대학으로서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총장 후보자 인터뷰 5면



오는 9일 치러질 선거에 임후보한 두 후보를 만나 대학발전을 위한 어떠한 전략과 구상이 있는지 들어봤다.

Daum커뮤니케이션 제주사대 6면



다음은 제주 이천을 통해 제주대학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힘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사 령

김도연(정치외교 1)
문정화(생물산업 1)

원에 의해 그 직을 면함
11월 18일자

《 제주대학교 교수초빙공고 》

1. 초빙분야 및 인원

대 학	학부(과) 전공 [초빙분야]	인 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응용생명공학전공 [천연물약리학]	1
해양과학대학	실습선 [선박운항 및 어로 실습지도]	1
자연과학대학	전산통계학과 [금융통계]	1
공 과 대 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실내건축계획]	1
의 과 대 학	의학과 [해부학], [병리학]	2
생명자원과학대학	간호학과 [모성간호학]	1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민법], [상법]	2
계	9분야	9

2.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

-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및 「제주대학교 교수자격기준연구실적확인산출기준」에 의거 교수초빙지원서 마감일 현재 교육·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지원자격을 충족한 외국인도 지원 가능

나. 분야별 지원자격(아래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 천연물약리학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06. 12.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 2) 선박운항 및 어로 실습지도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06. 12.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 국제전문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 어선2급 이상의 항해사 자격을 소지한 자.
 - 최근 3년 이내에 총톤수 200톤 이상의 어선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3) 금융통계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06. 12.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자.
- 4) 실내건축계획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06. 12.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3편 이상을 국제저명, 국제전문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 5) 해부학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06. 12.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 의사 면허증 소지자.
- 6) 병리학 분야
 - 최근 3년(2006. 12.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 해당과목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 석·박사학위 미소지자 지원 가능.

7) 모성간호학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06. 12.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 국제전문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 임상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조산사 면허증 소지자.

8) 민법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06. 12.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 국제전문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9) 상법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단, 미국 및 영국 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함).
- 최근 3년(2006. 12. 1 -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 국제전문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3. 제출서류

- 가. 제주대학교 교수초빙 지원서(붙임서식) 1부.
 - 나.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원본 및 학위기 사본 각 1부.
 - 외국인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반드시 첨부
 - 다. 경력증명서(교수초빙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원본 각 1부.
 - 근무경력에 연구원인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 라. 연구실적증명서, 연구실적증명서(공동)발표자 목록,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을 목록(민법 및 상법 분야에 한함) 및 연구원 재직(경력) 증명서 각 1부(붙임서식)
 - 마. 석·박사학위 논문 및 실습지도 분야는 항해사 면허증 사본 및 어선승선경력 증명서(해양항만청 발급) 원본 1부.
 - 바. 선박운항 및 어로 실습지도 분야는 항해사 면허증 사본 및 어선승선경력 증명서(해양항만청 발급) 원본 1부.
 - 사. 금융통계 분야 금융관련기관(금융관련회사 포함) 실무경력 증명서는 근무부서, 직책(직위), 담당업무명, 담당업무별 근무기간이 표시된 증명서 원본 1부.
 - 아. 해부학 분야는 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자. 병리학 분야는 의사 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사본 각 1부.
 - 차. 모성간호학 분야는 임상 실무경력 증명서 원본 1부 및 조산사 면허증 사본 1부.
 - 카. 기타 교수 초빙공고에서 제출토록 하는 사항
4. 서류 접수기간 : 2009. 12. 15(목) - 12. 17(목),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본교에 도착한 것에 한함.
5. 서류 접수처 : 제주대학교 교무처 교수지원과
6. 심사기준 및 전형방법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www.jeju.ac.kr)에 「전임교원 신규채용 전형지침」으로 게시됨.
7. 기타
-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나. 제출서류의 작성은 별지의 「지원서식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 다. 교수초빙지원서, 연구실적증명서(공동)발표자 목록, 최근 5년간 연구실적을 목록(민법 및 상법 분야에 한함) 및 연구원 재직(경력) 증명서는 별지 서식을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라며, 연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불임 「제주대학교 전임교원신규채용 전형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력(재직) 증명서는 교수초빙지원서에 작성한 임명기관장이 발급한 증명서 원본만 인정하므로 반드시 임명기관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마. 외국어로 작성된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인 남인 또는 서명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 바. 2개 이상의 분야에 복수지원할 수 없음.
 - 사. 특정대학 학사출신자 임용제한(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3 제1항)해당할 경우 제1순위자 하더라도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아.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사 관련 규정 및 전임교원신규채용전형지침에 의함.
 - 자. 지원서식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서류 및 연구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원서식 및 구비서류 작성요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본교는 책임지지 아니함.
 - 차. 지원서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 위조는 임용 후에도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함.
 - 카. 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만 통지함.
 - 타. 임용조건 :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본교 교원사 관련 규정에 의해 계약제로 임용됨.
 -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수지원과(☎(064)754-2021 ~ 2, Fax(064)755-6204)로 문의하시기 바람.

이러닝 학습, 주도적어야 효과적

편법막기 위한 대안 찾기 고심

e-러닝 강의를 듣는 일부 학생들이 강의장을 띄워놓고 다른 일을 하며 편법으로 출석을 인정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e-러닝 강의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e-러닝 강의는 지정된 기간 내에 강의장을 켜서 기준 시간을 채우면 출석이 인정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강의장을 띄워놓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실제 수강 여부에 상관없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더구나 교수와 학생이 직접 얼굴을 맞대며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듣는지 확인하기 힘들다.

이를 악용해 편법으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과대학의 한 학생은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장을 띄우지만 대부분 다른 일을 할 때가 많다”며 “진짜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열심히 듣겠지만 내 주변에는 원칙적으로 듣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e-러닝지원센터에서는 강의 중 2시간 이상 컴퓨터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세션이 끊겨서 출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강의가 끝난 후 해당 과목 퀴즈를 풀어야만 학습종료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학생이 수업을 듣지 않고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컴퓨터 앞으로 돌아와 퀴즈를 풀면 출석으로 인정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e-러닝 수업을 진행하는 일부 교수들은 자체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 이동철(경영정보) 교수는 강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과제를 제출해 수업을 제대로 들어야만 과제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김근형(경영정보) 교수는 매 강의마다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게시판에 올리도록 해서 이를 성직에 반영하고 있다.

e-러닝지원센터 고명자씨는 “e-러닝은 학습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학생들이 주도적인 학습 의지가 있어야만 학습종료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을 도입했다.”

고충석 전 총장, “재출마 없다”

교직원들에게 메시지 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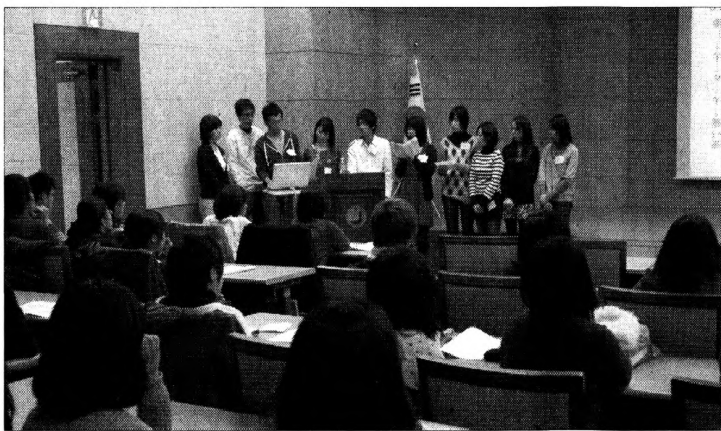
력과 고민이 헛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총장 재출마에 대해서 고 전 총장은 “누구보다도 대학의 정상화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재출마를 결코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지난 총장선거를 끝으로 보직자로서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만큼 지난 총장선거 일정이 잡혔을 때도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총장은 끝으로 “새로운 총장이 선출되어 대학이 정상화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자 곧 제 소망이기도 하다”며 “곧 있을 총장선거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말 퇴임후 안식년 중인 고충석 전 총장은 지난달 19일 직원게시판을 통해 4년간의 임기 소회와 재선거에 대한 입장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고 전 총장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 뒤 “대학평가 결과 지난해 57위에서 34위로 23단계를 급상승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저와 여러분의 노



지난달 22일 국제교류회관에서 리츠메이칸APU대 학생들과 제주대 학생들이 양국의 문화에 대해 논의하는 합동세미나를 열고 있다.

리츠메이칸대학과 국제교류

리츠메이칸APU대 학생들과 제주대 학생들이 지난달 22일 국제교류회관에서 학술교류행사를 가졌다.

국제교류센터와 일어일문학과가 공동 주관한 이번 교류행사는 양 대학의 활발하고 구체적인 학술교류를 도모하고자 열렸다.

교류행사에서 양 대학 학생들은

자국의 문화에 대한 4가지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찬희(리츠메이칸APU대) 학생처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양 대학이 기존의 포괄적 학술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건 기자

겨울방학 영어캠프 ‘벌써 손짓’

외국어교육원 주최... 학습과 놀이 조화

‘긴 겨울방학 아이들을 위한 적당한 겨울캠프가 없을까.’

올해도 초등학생들이 겨울방학을 즐겁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영어캠프가 외국어교육원 주최로 풍성하게 열린다. 겨울방학 영어캠프는 학습과 놀이를 적절히 배합해 학생들의 흥미도 끌고 많은 지식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인기가다.

외국어교육원(원장 김선희 교수)은 겨울방학동안 영어 체험 학습을 위해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교 3~6학년 90명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캠프는 다음달 11일부터 22일까지 11박12일 일정을

로 진행되며 원어민 교사가 수업을 맡게 되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학생들의 수업을 돕는다.

수업은 원어민과 함께하는 English Only Program과 문화, 퀴즈, 요리, 체육, 영화, 팝송, 역할극 등을 통한 다양한 주제별 영어 학습, 원어민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학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오는 1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참가비를 입금한 순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수강료는 1인당 95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어교육원 행정실(064)754-2291~2292로 문의하면 된다.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협력협약

백혈병소아암 환자 위한 교육·복지 협력

제주대학교(총장직무대리 최치규)와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회장 안민석 국회의원)는 지난달 21일 서귀포연수원에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백혈병소아암 환자 및 완치자를 위하여 교육 및 복지 증진 등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

는 것을 목적으로, 양 기관의 제안하는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해 상호 협력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백혈병소아암 병력자 입학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사회배려대상자 특별전형 실시 △희망장학금 지급 △학습지도도우미 결연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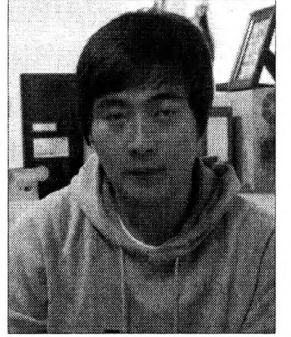
〈생각대로〉총학생회 공약사업 이행 수준은?

공약이행 결과 대체로 저조

정기재정보고·캠페인 시행 등등

올해 ‘생각대로’ 총학생회의 임기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다. 제주대신문에서는 한해를 정리하며 ‘생각대로’ 총학생회의 공약들을 최종 점검하고자 한다. 이번 공약평가는 여러 공약 중에서도 지난번 상반기 공약평가(본지 8월 26일자)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오경남 총학생회장

생각대로 총학생회 공약 중 △학점포기제 확대 △중앙도서관 열람실 자치위원회 △강의평가, 수강평가 공개 △총학생회 펜트센터 △4.3관련 활동 △학생증을 통한 다양한 할인 △배두관스크린 설치 △시네마데이 △기숙사 복지 확대 등의 공약은 이행이 잘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몇몇 공약은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학인불가 재정보고? 총학생회는 정기 재정보고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 사용내역을 공시했다. 정기 재정보고는 대의원회의 전산회계 시스템을 이용해 매일 결산하게 되어 언뜻 보기에는 충실하게 올려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홈페이지 상에 권한문제로 학생들이 내려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됐고 지금까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 오경남 총학생회장은 “담당자에게 해결하라고 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생색난 낸 ‘지금 만나러 갑니다’ 총학생회는 각 학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공약을 내놓았다. 이 공약은 2월부터 시작해 4월 중순까지 10개 학과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5월 대동제 준비로 중단됐고, 대동제가 끝나면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동제가 연기돼 9월까지 공약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

다. 대동제가 끝난 이후에도 진행되지 않았다.

총학생회장은 “대동제가 끝난 이후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임기말로 들어간 상황에서 진행을 해도 효과가 미미할 것 같아 중단했다”고 말했다.

▲발만 담근 캠페인 공약 총학생회는 매일 한 가지 사안을 정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공약을 준비했다. 이 공약에 따라 3월과 4월 학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러나 5월 대동제와 맞쳐 시행하기로 한 기부문화 캠페인을 진행하지 못한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총학생회장은 “5월 기부문화 캠페인을 진행하지 못하다보니

학점포기제 확대·학생할인 등

일부 공약이행은 무난

흐름이 끊겨 중단했다”고 말했다.

▲시기 놓친 4학년 2학기 등록금 인하 공약

총학생회는 4학년 2학기에 적게 받는 학점에 맞춰 적은 등록금을 낼 수 있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이 공약은 진행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 그 이유는 올해 등록금 협상이 없이 동결로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이에 총학생회장은 “공약 이행은 못했지만, 다음 총학생회에 이 사안의 진행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총장 공백과 예산 문제로 진행하지 못한 공약

먼저 도심캠퍼스 유치는 옛 제주대학병원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도심캠퍼스추진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잇따라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총장의 공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외부상업시설 유치, 제주대학교 상징품 또한 총장의 부재로 시행되지 못했다.

또 교의 스쿨버스 도입은 예산이 없어 실행하지 못했다.

이밖에 △대동제 특별 운영위원회 △학생증 워크샵 △총학생회 활동보고 △팀플게시판 및 자격증 특강 공약이 실행되지 못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공약도 많았다.

‘학자금 대출 이자대납 제도’는 민주노동당 제주도당과 도내 다른

대학의 총학생회와 연대해 조례를 발의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도지사 선거문제와 겹치면서 시행이 연기됐다.

‘차량 요일별 선택 부제 운행제도’는 기존의 차량 요일제의 폐지로 시행되지 않았다.

오경남 총학생회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실행하지 못한 것도 있다”며 “공약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학생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보배 기자



지난달 27일 영주어문학회 주최로 2009 하반기 전국 학술대회가 인문대 제주문화원형학회관에서 열렸다.

‘한국 지역문학과 매체의 사회학’

영주어문학회·국어문화원 주최

영주어문학회(회장 허춘 교수)와 국어문화원(원장 강영봉 교수)이 공동주최하는 2009 하반기 전국학술대회가 ‘한국 지역문학과 매체의 사회학’을 주제로 지난달 27일 인문대 제주문화원형학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허춘 영주어문학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회환(인하대) 교수가 ‘해방 후 경인 문단과 지역매체의 사회학’을 발표했으며, 고명철(광운대) 교수가 ‘《한양》

에 실린 소설의 문제인식’, 남기택(강원대) 교수가 ‘강원영동지역문학의 형성과 동인지의 양상’, 송기성(충남대) 교수가 ‘대전충남지역문학 형성과 매체’를 주제발표했다.

이어 최명표(전주교대) 교수가 ‘1950년대 전북지역 매체와 문학’, 이순욱(부산대) 교수가 ‘한국전쟁기 부산경남지역문학과 동인지’, 김동윤 국어국문학 교수가 ‘1950년대 제주문학’과 ‘제주신보’를 발표했다.

지역 살리는 지역언론에 대한 제고

언론홍보학과, 지역언론연구 세미나 열려

언론홍보학과(학과장 박경숙 교수)가 지난달 27일 법정대학 2층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지역언론연구 2009’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지역언론의 역할에 대한 제고’를 주제로 다양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역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방향에서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주제는 총 4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세션은 ‘언론과 교육’, 제2세션은 ‘언론과 환경’, 제3세션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기여를 위한 언론의 역할’, 제4세션은 ‘새 미디어법과 지역언론’이다.

제1세션에서는 이현숙(한라일보) 기자와 최낙진(언론홍보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현장국(제주일보 뉴미디어국장), 김석주(제민일보 사회경제부장), 오유진(KCTV방송국)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정재엽(JIBS) PD가 ‘꽃자왓과 지역언론’이란 주제로 발제한 후 조성운(사회학과) 교수, 강민부(KBS제



지난달 27일 법정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2009 지역언론연구 세미나에서 제1세션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주 제작부장), 김효철(꽃자왓사람들) 사무처장이 나서 열린 토론을 벌였다.

제3세션에서는 민기(행정학과) 교수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기여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제주영리법인 병원 도입논란을 중심으로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추진과 지역신문의 보도를 분석했다. 토론자로 강원철 도의원, 임춘봉 JDC 홍보실장, 이윤락

JIBS 보도국장이 참석했다.

마지막 제4세션은 라운드 테이블로 ‘새 미디어법과 지역언론’을 주제로 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새 미디어법과 지역언론’을 주제로 김경호(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계춘(한라일보 논설위원), 김광우(제주 MBC 기자), 고현환(제주대 법과정책연구소) 연구원이 토론을 벌였다.

한국기계연구원과 연구협약협정 체결
공과대에 양기관 협력센터 설치



지난달 20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과 연구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제주대학교(총장직무대리 최치규)와 한국기계연구원(원장 이상천)은 지난달 20일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연구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공과대학 4호관에서 '국립제주대학교·한국기계연구원 협력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연구협약 양해각서 체결은 협력센터를 구축하여 미래 원천기술 기획, 공동 관심 분야 공동연구, 인력활용 및 보유장비 공유 등 연구역량 향상과 상호 발전을 위하여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긴밀히 도모하고자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지식, 정보, 시설, 기술, 인력 교류 및 지원 △기계에너지 산업 분야 인재양성(석·박사 학위과정) 협력 △기반기술 및 산업원천 기술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및 인력 상호 교류 △국가적 과제 및 글로벌 이슈 해결에 부합하는 대형사업 발굴, 기획, 수행의 공동 추진 등을 협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과대학 4호관에 '국립제주대학교·한국기계연구원 협력센터'를 설치했다.

학생생활관 음식 이물질 혼입... '주의하겠다'

대부분 원재료나 조리과정 부주의 탓
“식당 이물 혼입 재발 막자”

학생생활관 급식에서 이물질 혼입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생활관에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말 한 학생이 고사리에 서 녹슨 옷핀이 나와, 생활관 측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생은 아침 급식을 먹던 중 반찬으로 나온 고사리에 정제 모를 쇠덩어리를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고사리와 거의 비슷한 색을 띄게 변색된 녹슨 옷핀이었다. 학생은 이를 보고, 관하고 기숙사 측에 항의했지만 후에 영양사의 사과와 주의하겠다는 이야기만을 들었을 뿐 근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받지는 못했다.

생활관에서는 고사리에서 옷핀이 나온 경우는 매우 드문 일로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는 고사

리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건조과정 등에서 이물질이 잘못 혼입된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관에서는 고사리를 납품하는 업체에 사실을 알리고 주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생생활관 식당은 매일 아침·저녁마다 10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대규모의 식당이다. 이에 따라 음식물의 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음식에 혼입되는 이물질은 재료가 함께 들어있는 벌레류, 재료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음식물 포장지 등으로 다양하다.

생활관에서는 작년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쓰며 벌레가 많이 나온다는 의견을 받아 왔다. 또 해산물이나 육개장과 같은 음식물에서 철망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량으로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물질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까지 조리원이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밖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순정(학생생활관) 영양사는 “이러한 이물질 혼입의 경우가 부득이 일어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음식을 만드는데 있어서, 조리원들에게 야채를 씻거나, 재료를 선별하는데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경 기자

여교수회 1일 10주년 창립행사 공개강의로 피드백 받는다

특강, 음악 공연 등 뜻깊은 자리



1일 오후 아라뮤즈홀에서 열린 여교수회 행사에서 교수들로 구성된 혼성 중창단의 노래공연이 열리고 있다.

여교수회(회장 박경란 통영대학교 교수)가 1일 오후 아라뮤즈홀에서 창립 10돌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념식에 이어 김숙희 전 교육부장관이 '21세기 지식인의 책임'을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김용형, 김천석, 이선주 교수의 재즈밴드 공연과 교수들로 구성된 혼성 중창단의 'Eres Tu(그대 있는 곳까지)', Stein Song(축배의 노래)' 등의 공연이 열렸다.

박경란 여교수회장은 “10년 전에 비해 여교수님의 숫자가 3배로 늘어난 양적인 성장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연구활동을 하는 등 질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보였다”면서 “이제 10주년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아 여교수회가 지향할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는 8일까지 교수학습지원센터 주최

‘공개강의(Open Lecture)’가 교수학습지원센터 주최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교양동과 사범대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공개강의는 대학 구성원이려면 누구나 참관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강의다.

공개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는 참관인 7명을 지정해 자신의 교수법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수업 컨설팅 전문가’에게도 피드백을 받는다.

공개강의를 진행한 조정원(컴퓨터교육) 교수는 “우리 사회의 문화가 누군가의 피드백을 공격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공개강의’라는 시도가 쉽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를 빌어 강의의 부족한 부분을 평가받고 개선의 발판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고은현 교수학습지원센터 책임연구원은 “공개강의를 통해 수업의 질과 교수들의 교육력이 향상되서 결국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반응에 따라 내년에도 계속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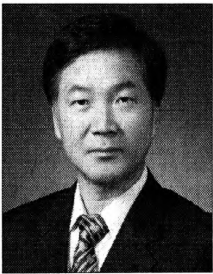
무역학과 현재상씨 등 15명 우수상

제7회 대학생 모의상사중재 경연대회

무역학과 학생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7회 전국대학생 모의상사중재 경연대회에서 우수상과 상금 150만원을 수상했다.

무역학과 현재상(3학년) 학생 등 15명이 참여한 모의상사중재 경연대회에서 ‘물품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주제로 경연대회에 참가, 우수상을 받았다.

신태균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신태균 교수(수의과대학 학장)가 지난달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09년도 제2회 정기총회’에서 농수산학부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우리대학에서는 첫 정회원이 된 신 교수는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200여편의 연구논문을 게재하고 국제학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한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국가과학기술 정책 연구·평가 및 자문을 하는 법정기구로써 과학기술 분야별 석학들의 모임이다.

‘장기하와 얼굴들’ 3일 ‘문화광장’ 공연

언더그라운드 록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 오는 3일 오후 2시 아라뮤즈홀에서 ‘문화광장’ 공연을 펼친다.

공연 1시간 전부터 좌석표를 무료로 배부하면 수강생은 물론 일반인들도 관람이 가능하다.

문의를 제주대문화광장 홈페이지(http://jnuc.jeju.ac.kr)에서 하면 된다.



총장 선거운동 과열 경계해야

○... 애물단지가 된 교양동 스크린

교양동 강의실에 설치된 스크린은 낮시간만 되면 애물단지가 된다는데.

알고 보니 교양동 일부 강의실에 빛을 가리는 블라인드가 없어서 날이 밝은 오전 수업시간에는 스크린이 희끗하게만 보여, 이에 학생들은 수업 때마다 눈 부릅뜨고 흐릿한 화면을 지켜보느라 한숨을 짓는 데는 한참이다. 상황이 이러니 교수들 또한 애써 준비한 영상, 사진 등의 수업자료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더 큰 한숨.

대형 스크린과 전자교탁 등 첨단 장비를 갖추는 것도 좋지만 수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심한 배려도 필요할 듯 하다.

○... 출석표는 가득, 좌석은 텅?

수강생이 200명 넘어가는 대형 강의실에는 투병기간들이 앉아있는 출석표와 좌석에 있는 학생수가 일치하지 않는 괴현상이 일어난다는데...

이는 문화광장이나 음악감상

등의 수업에 수강생이 너무 많아 출석표를 통해 출석을 확인하는데 이를 악용해 출석표를 친구들에게 팔고 속칭 대리출석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어서 담당자들도 이를 가려내기 위해 골머리를 아파다 못해 빠질 정도다 하오.

등록금 비싸다 말하면서 정작 비싼 등록금 내고 듣는 수업은 편법을 이용해 대리출석으로 남비하더니 부끄러운 줄 아시오.

○...총장 선거운동 과열 경계해야

제8대 총장 재선거가 2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교수와 직원을 상대로 공식 선거운동에 나서면서 선거 과열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쓴소리.

이를 후보자는 고교 동창 사이로 전면에서 선거 지휘를 하기보다는 측근들이 지지세력을 끌어들이면서 과열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서로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추고 있는데다 누구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선거로 전개되면서 자칫 혼탁 선거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

모 교수는 “선거로 인해 지지세력 간 반목하거나 패가 갈린다면 이번 선거의 의미가 없다”며 “후보 예정자들은 당선에만 집착하지 말고 공약과 비전을 세우는 일에 주력해 달라”고 주문.

○...주차전쟁은 밤낮이 따로 없다?

넓기로는 전국수준을 자랑하는 제주대 캠퍼스에서 한밤 중 느닷없는 교통체증 현상이 빚어져 여기저기서 짜증 섞인 경적소리가 울려대는데.

알고보니 지난주 목요일 저녁 ‘아라뮤즈홀’에서 열린 공연에 참석한 관객들이 도로에 세운 차량의 행렬이 아라뮤즈홀 앞에서부터 백두관 입구까지 이어져 오고가는 차량 간 교통혼잡이 벌어진 것. 차량소통이 원활치 않아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애초 건물 지을 때부터 주차지를 넉넉하게 확보했다면 혼잡은 없었을 텐데, 행사 때마다 체증이 반복되는 것과 더불어 차량사고의 위험도 따르니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하게 해 줄 듯 싶소.

제29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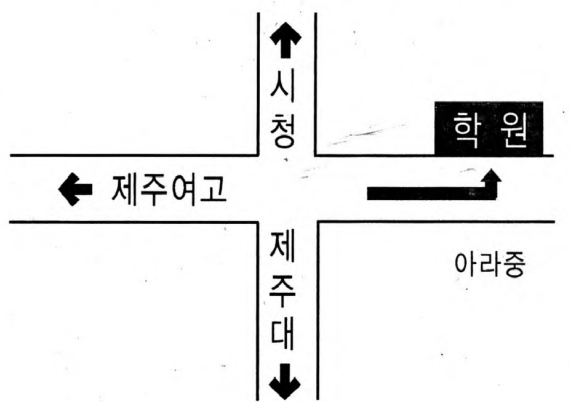
언론출판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5주년을 맞이하여 제29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 1.행사명: 제29회 백록학술상
- 2.응모자격: 제주대학교 재학생(대학원 박사과정은 제외)
- 3.분야: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출력물과 논문파일용 CD로 동시 제출,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음.
- 4.시상: 학부생/대학원생 (당선작 각 1편: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각각 2편: 총장상 및 상금 30만원)
-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5.심사 및 시상: 심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 6.접수마감: 2009년 12월 7일(월) 18:00까지
- 7.당선작발표: 2010년 신년호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 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제주대 ↔ 학원(08:30~17:00)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 앞 출발
- 주말 교육 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 셔틀버스 운행

■ 되돌아본 통합제주대 출범 2주년

통합제주대 순항 속 정부지원금 변수

교과과정 · 교육시설 속속 마무리... 학생교류는 과제로

통합제주대가 출범 2년째를 맞고 있다. 수많은 진통을 겪었던 양 대학이 이제는 하나의 대학으로서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통합지원금, 지원기간의 연장 등으로 통합이행각서 사항을 완전하게 실행하기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인 통합 과정을 요약 정리해 본다. <편집자주>

▲구조개혁 계획 대비 100%달성

대학 구조개혁은 기존의 계획을 모두 달성했다. 제주대는 입학정원 감축, 대학원 통폐합, 조직감축,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 개혁안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입학정원을 2004년 대비 16.3%를 감축했고, 전임교원 확보율과 신입생 충원율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또 조직감축과 대학원 통폐합 등을 통해 행정조직을 3취1국1단9과 3개 하부조직 체계로, 학사조직은 11개단대9개학부(22개전공)52개 학과와 9개 대학원으로 개편했다. 이외에 21개의 교육지원시설, 16개의 연구시설과 25개의 기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법인과 부설학교도 통합을 통해 각 3개씩 운영하고 있다.

▲운영체제 개선 순항... 캠퍼스 간 이동 불편 개선 필요

대학운영 체제 개선은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제주대는 총장선출규정을 개정했으며, 학장선출 제도 또한 개선했다. 또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평의회, 교수회가 통합됐고, 평의회에 사라캠퍼스 직원이 참여하게 됐다. 대학통합에 따른 업적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교수 공채제도 개선 등 교원 인사제도를 개선했다. 또 산학협력활성화를 위해 연구·산학 통합 전산체제를 구축하고, 교육대학 관련 신규 국제사업을 유치(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사업, 초등교원양성대학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사업, 교육대학 실용영어 강화 사업)했다.

이외에도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과 영어프로그램 ELI(English Language Institute)를 운영하고 외국대학과 복수학위제, 해외 인턴십, 해외IT연수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리모델링이 이뤄진 사라캠퍼스 학생회관



통합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광장 공연

그러나 행정업무 진행상 불편이 제기됐다. 행정서류 중 팩스나 인터넷을 통해 전달하지 않고 직접 아라캠퍼스를 방문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 조교나 직원들이 캠퍼스를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에 대한 통합작업은 대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제주대는 2009년부터 통합교과과정으로 개편해 적용했고,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또 교육대학 재직생 및 신입생 교과규정이 마련됐다. 그리고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영어 집중교육과정으로 전국 최초로 해외교생실습이 진행된다. 현재 20명의 학생(사라 10명, 아라 10명)이 확정됐으며, 내년 캐나다의 노바스코티아주 7개의 교육청 관내 공립 초중학교에서 8주 과정으로 해외 교생실습을 진행한다.

그러나 통합교과과정이 사라캠퍼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대학 당시 학생 수가 적은 점을 고려해 10명 이상이어도 강의가 개설, 운영됐다. 하지만 사라캠퍼스가 된 후 제주대 규정에 맞춰 20명 이상이어야 강의가 운영돼 일부 폐강된 과목이 발생했다.

▲문화광장 · 세계교육기행 학생들 호

응 좋아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테마별 세계교육기행과 문화광장 등의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08년 26개팀 104명의 학생들과 2009년 24개팀 94명의 학생들이 통합지원금으로 테마별 세계교육기행을 다녀왔다. 또 내년에도 100명 내외의 학생들을 선발해 보낼 예정이다. 문화광장은 2008년도부터 통합지원금으로 꾸준히 열리고 있으며, 국악, 연극,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콘텐츠를 학생들이 접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광장은 지역주민들에게도 무료로 개방해 지역사회에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타사항

이외에도 2009학년부터 통합 신입생을 선발했으며, 기회균등 선발제도를 확대했다. 사라캠퍼스 시설물 개선을 위한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이다. 사라교육관의 증축 및 도서관, 학생회관 리모델링 등이 진행됐고, 교사교육센터 건물을 새로 짓고 있다.

한편에서는 정보도서관의 신축이나 교수지원 부분의 문제도 남아 있다. 정보도서관은 처음 계획했던 예산보다 줄어들다보니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 교수지원부분은 교과부에서 교수증원을 함께 허가하지 않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다.

▲학생들 간의 교류부족, 정서적 거리감 여전

대학은 통합이 이뤄졌지만 학생들 간의 정서적 거리감은 여전하다. 현상의(교육대학 수학교육전공 3)씨는 “통합이후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이 지원됐지만 아라캠퍼스와 사라캠퍼스 학생들의 교류는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올해 아라체전은 사라캠퍼스에서 참여하지 못했고, 대동제도 일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한 수준에 그쳤다.

오경남 학생회장은 “아라체전에도 참석을 요청하고, 대동제의 사라캠퍼스 인원을 따로 배정하기도 했지만 아직 정서적인 거리감이 있다 보니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양진진 학생처장은 “학생들간의 교류가 부족한 점이 우리도 가장 아쉬운 점”이라며 “아라캠퍼스, 사라캠퍼스 학생들이 교류를 할 의지만 보이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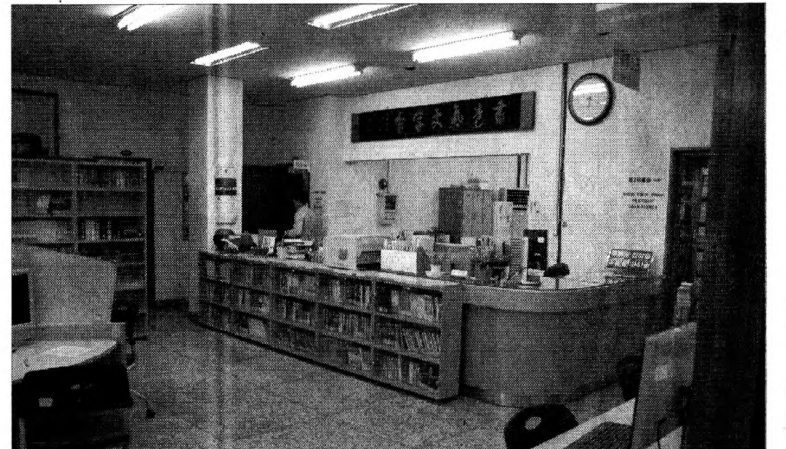
양 처장은 또 “캠퍼스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상 어쩔 수 없는 불편이 있다”며 “불편사항들을 수렴해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보배 기자

■ 교육대학 중앙도서관분관 탐방

캠퍼스간 도서이동 자유로워야

내부시설 보완공사는 마무리



사라캠퍼스 도서관은 최근 리모델링으로 열악한 내부 시설들의 보완을 마쳤다.

1990년 지어진 사라캠퍼스 도서관은 교육중심 정보화도서관을 지향하고 있다. 총 세 개의 층으로 지어진 도서관은 1층과 2층은 자료실과 전자정보실로 3층은 열람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540평에 2%석의 열람좌석을 보유하고 있다. 서적량은 11만여권이며, 모두 개가 서적으로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라캠퍼스 도서관은 최근 리모델링으로 열람실 및 전자검색실의 확충 등 과거의 열악했던 시설부분의 보완을 마쳤다. 또 학생들이 과제를 하며 주로 사용하는 국회도서관검색PC도 수요에 맞춰 종전 2대에서 4대로 늘렸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지난 2004년 사라캠퍼스 도서관은 교과부로부터 C급관정을 받으며 열람실과 자료실의 위치를 불가피하게 바꾸게 됐다. 3층의 서가공간이 모두 이용자 공간으로 바뀌며 서적을 둘 공간이 적어졌다.

현재 서가 간의 폭은 75cm로 중앙도서관 보다 더 좁은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통합이행각서에는 정보도서관 신축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도서관 건물의 서고 하중으로 증설 바닥의 균열, 노후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축을하기로 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라캠퍼스 도서관 신축은 예산상의 문제로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인력도 부족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라캠퍼스

관 전문사서 2명과 근로장학생 2명으로 도서관의 모든 행정적 업무를 맡았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인력 배치라는 것이 도서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인턴 조교 1명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도서관 인력은 여전히 부족해 현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전문사서 1명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또 중앙도서관이 아라캠퍼에 위치한 관계로 사라캠퍼스 학생들은 아라캠퍼스 학생들에 비해 전공 및 교양 서적을 접할 기회가 매우 적은 상황이다. 통합된 도서관 정보시스템으로 필요한 책을 찾으면 아라캠퍼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따라 캠퍼스 간 도서를 이동해 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김현민(교육대학 사회교육전공 4) 학생은 “역사에 관심이 많아 책들을 검색하다 보면 대부분이 아라캠퍼 중앙도서관에 있다”며 “캠퍼스가 나뉘진 타 대학에서는 도서를 신청하면 책을 이동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들은 바 있는데, 학생 편의를 위해 우리대학에서도 시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창남 사서팀장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충분히 검토해 불만 사항”이라며 “캠퍼스간 순환 버스 등의 여건만 마련이 된다면, 중앙도서관과 논의해 서비스 시행을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종건 기자

제주대신문사 < 57기 수습기자 > 모집

제주대신문사에서 완전 소중한 새내기 57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수습기자가 되면 ...

A급 장학 혜택 장학금 및 취재료, 원고료, 식비 제공

다양한 취재 기회 제공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원정 취재
국내외 다양한 기획 취재 및 연수 제공)

멀티미디어기기 제공

개인 데스크 및 취재용 카메라, 편집용 매킨토시

현직기자에게 배우는 기자 교육 및 실습

(보도기사작성에서 보도사진 등)

매킨토시를 이용한 신문 편집 교육

모집대상 아라캠퍼스, 사라캠퍼스 09학번 학생

원서마감 12월 19일 토요일 까지

장소 본관 동쪽 직업능력개발원 3층에 위치한
언론출판센터 내 제주대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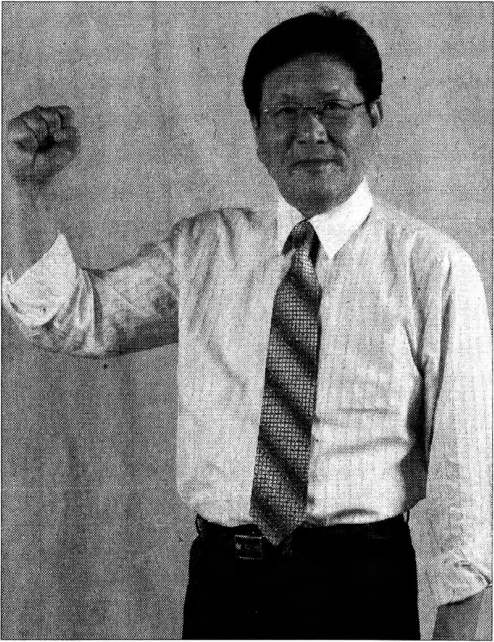
문의 제주대신문사 (754-2279, 010-6776-8277)



기호 1번 허향진(관광경영학과) 후보

“시대를 선도하는 역동적인 명품대학으로 육성”

최선의 분권행정 운영 통해 차별화



■ 허향진 후보는 누구?

1955년 1월 24일생으로 제주에서 태어나 1970년 제주제일중, 1973년 제주제일고와 1977년 제주대 관광학과를 졸업했다. 경희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세종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내 보직으로는 제주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소장, 평의위원회 의장, 경상대학 학장과 경영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대외 활동으로는 청와대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 제주특위 위원,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자문위원과 제주지속가능녹색성장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제주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제주혁신협의회 의장 등을 맡아 다양한 대외적 활동을 하고 있다. 또 한국관광학회 부회장, 제주관광학회 회장을 맡아 왕성한 학회 활동을 했다.

허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정책에 관심이 많아 2007년 7월 15일 제5대 제주발전연구원장으로 취임, 2년간의 파견근무를 마쳤다. 제주발전연구원장 재직시에는 예산과 조직을 두 배 가까이 키웠고, 미래포럼 운영 등을 통해 조직운영 능력의 탁월함을 검증받았다. 저서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2008), <호텔관리체계>(2004) 등이 있다. 주량은 소주 한 병이며, 책읽기의 (끝없는 도전과 용기)를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한다.

기호 1번 허향진(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제주대의 미래 구상을 밝히면서 “시대를 선도하는 역동적인 명품대학으로 개척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허 후보는 또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지역거점대학, 가슴 따뜻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전인교육대학, 앞선 지식과 기술 개발로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연구중심대학, 지구촌의 인재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글로벌대학 등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총장 출마를 결심한 계기와 바람직한 총장상은

“부만근 전 총장 재직시 평의위원회 의장을 하며 총장 출마를 생각했다. 제주대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가지면서 대학을 위해 헌신 봉사할 결심을 갖게 됐다.

지금은 시대가 변한 만큼 권위적인 총장상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지식의 전당에 학문적 권위만 가지고 총장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 대학 경영에 있어서는 CEO형 총장상, 대학구성원들에게는 섬기는 총장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학이라는 역할에 충실하게 교육과 연구를 지지해주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전 다른 사람보다 귀가 큰 편이다. 이 큰 귀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잘하는 총장이 되겠다.”

-여러 가지 공약 중 차별화되고 신선한 내용은 무엇인가

“최선의 분권행정은 분명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대학운영에 대한 근본적 변혁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는 본부의 획일적인 운영에 의해 대학 발전을 도모했지만 이제는 각 단과대학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우리대학의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단과대학에 과감히 이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본부-단과대학간 업무 재조정 및 권한 이양, 단과대학 자율예산 대폭 증액, 단과대학 중심의 학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도모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부조직을 효과 지향적인 본부기능에 맞춰 재설계할 계획도 있다.”

-현 정부는 국립대학들을 법인화방향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국립대의 법인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대학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더욱 그러하다. 다만 이 사안은 우리대학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국공립대학의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적으로 강제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대학 자체의 철저한 준비와 반대논리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

특히 우리대학은 법인화가 법률적으로 강제돼 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거점대학인 점 등을 감안하여 제일 나중에 해야 하고 그 사이에 특성화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총장산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대학의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 국책사업 유치 및 발전기금 확보 등과 같은 부분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건가

“대학구성원 각자가 자기 일을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장은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면서 그것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직 열악한 상태의 우리대학 재정기반을 확충할 자신이 있다. 임기 내 대학발전기금 1000억원 시대를 열겠다. 지난 번 현대자동차로부터 10억 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하는데 일조했고, 지난해 제일제주인신년회에 참석하여 그분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있다.

특히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목적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안정적 재정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노력을 통해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또한 지식 기반형의 다양한 수익사업을 개발할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 지원, 학교기업 활성화, 생명과학+의학+수의학전문클러스터 구축, 지역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융복합형 수익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책사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국책사업기획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생각이다. 특히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학 측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 본부 실처장과 지방정부의 실국장과의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지금 제주대학교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리대학의 현안 과제는 첫째 구성원간의 갈등, 둘째 재정적 기반, 셋째 학생 취업, 넷째 지역 내 우리대학의 추락된 이미지 회복, 다섯째 낮은 교직원 급여에 등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홍보시스템은 아주 취약하다. 대학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문화 전달기구를 설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홍보시스템은 아주 취약하다. 대학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문화 전달기구를 설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홍보시스템은 아주 취약하다. 대학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문화 전달기구를 설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문화 콘셉트 없는 인위적 홍보는 효과가 없으므로 문화 분야와 함께 이 분야를 전담할 기구를 마련하겠다. 바람직한 대학문화 창달을 위한 기획도가 기구에서 추진토록 하겠다. 또한 낮은 교직원 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임기 내 600만원 정도의 인상을 도모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대학 발전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해왔고, 성과는

“1990년대 초에 제주도가 최초로 제주대학교에 의뢰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의 총괄간사를 맡아서 임무를 완수하고 교수님들의 역량을 결집시켰던 경험에 있다. 또한 평의위원회 의장을 하면서 당시 임의단체였던 교수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통합 법적 기구인 교수회를 탄생시키는데 일조를 한 바 있다.”

-우리대학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중앙일보의 전국대학 평가에서 우리대학이 지난해 57위에서 34위로 그 순위가 경증 뛰어올라 명실공히 전국 상위권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객관적 지표로 보여주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총장에 당선되면 전국대학 20위권 이내로 끌어올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교대 통합 등으로 작지만 튼실한 대학이 되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제 작지만 강한 대학이 되어갈 것이다.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에서 아름다운 캠퍼스를 갖춘 점도 자랑거리이다. 아직 미진한 점이 있지만 제주학 연구의 산실이라는 점도 우리가 내세울 부분이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인 진흥책을 마련한다면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취업률 70% 이상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취업부서를 총장직속 기구로 격상해 위상 및 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취업과 연계한 학생 특성 맞춤형 교수-학습 전략을 구축할 예정이다. 학과별 취업전담교수제를 도입하고 이 분들에게 대해서는 시수 감면 및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학생 취업 활동에 적극 노력하도록 격려하겠다. 제주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와 연계하여 외국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기초적인 영어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다각적인 취업촉진운동 등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발전연구원장 재직 경험이 총장 당선후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발전연구원장을 할 때에는 이치범 재선거가 이뤄질지 생각을 못했다. 발전연구원장 경험은 매우 소중하다. 인문사회, 자연과학분야까지 통합 연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 전공분야 외에도 학제적 연구의 중요성과 모든 연구 분야를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특히 중앙정부 주요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의 장·차관 회의와 토론회 등을 할 수 있었다. 발전연구원이 제주대는 물론 다른 지역 대학과 국책 연구기관과의 소통과 관계를 가지기에 이러한 경험과 조정역할의 경험은 총장을 맡을 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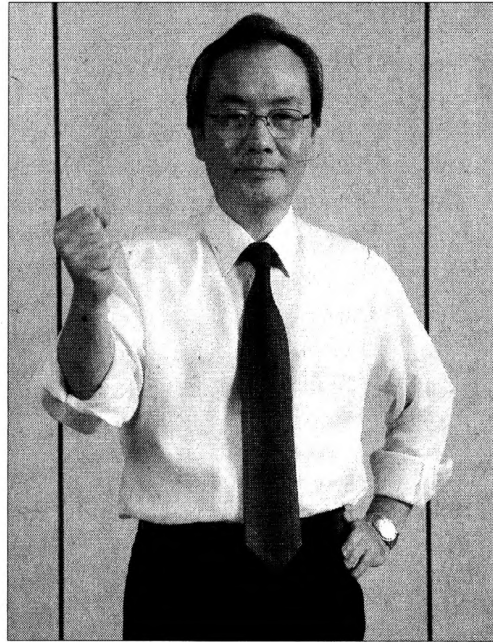
또한 청와대, 총리실 관련 국가 회의에도 다수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인사들과의 교류가 있기에 중앙네트워크도 남뚝지않게 탄탄하다. 물론 혼자만의 네트워크로 대학 운영을 해왔다는 건 아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지역사회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전임 총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들을 한데 아울러서 잘 활용하면 대학 현안을 원만히 해결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용복 대기자

기호 2번 김부찬(법학전문대학원) 후보

“글로벌 리더 양성하는 창조적 학문공동체 완성”

수익 창출형 대학재정 기반 구축



■ 김부찬 후보는 누구?

1955년 3월 4일생으로 서귀포시에서 태어나 1970년 효돈중학교, 1973년 제주제일고와 1978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국제법 권위자인 부산대 최재훈 교수와의 인연으로 부산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기획처장과 산학협력단장 등의 우리 대학 본부 보직을 거쳤고, 외교통상부 국제법 자문위원,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 국회입법지원위원 등을 역임했거나 수행하고 있다. 학회 활동으로는 현재 대한국제법학회 차기회장과 영남국제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2005년부터 5년 연속으로 마르퀴즈 후즈후 인명사전에 등재됐으며, 2004년 대한국제법학회 학술상을, 2006년 영국의 국제인명센터(IBC)에서 수여한 ‘국제교육자상’을 받았다. 현 정부부터 장관급 인사 최종후보까지 오를 바 있다. 국제법 강의를 받았던 양세벽씨가 최근 외무고시에 합격하면서 제자를 키우는 보람을 다시 느꼈다는 말로 기쁨을 표현했다. 저서로는 <법학의 기초이론>(1994), <국제법신강>(1997), <제주의 국제화전략>(2007) 등이 있다. 좌우명은 ‘약속은 지켜야 한다’이다. 주량은 소주 2병이며,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를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한다.

기호 2번 김부찬(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함께 하는 대학, 다시 도약하는 제주대학교”를 모토로 “신뢰와 섬김의 민주적 리더십과 자율적인 대학운영으로 명실상부한 동북아중심대학으로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기술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설립, 대학재정을 창출하는 등 수익창출형 재정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장 출마를 결심한 계기와 바람직한 총장상은

“제주대학교에 몸담을 때부터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음먹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2005년 5월초에 산학협력단장 임기를 마치면서 연구교수로 본부를 떠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앞으로 대학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를 생각하게 됐고 이른 감이 있었지만 총장선거에 뜻을 이루게 된 계기 가 됐다.

새 시대에 맞는 총장은 소통하는 리더십과 신뢰와 섬김의 민주적 리더십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 현안이 생기면 서로가 이해하고 실행해야지, 소통을 가로막는 독재형은 안된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하는 학문공동체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

-두 번째 총장 도전이다.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후 스스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과 모자란 점을 발견하고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재선거 결정이 난 다음에 총장 재도전을 결심했다. 재선거에 나서면서 만류하는 분은 없었다.

오히려 이번엔 재도전을 안한다면 의아할 정도로 생각하고, 마무리를 지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우선 8대 총장 선거에서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출마로 이어지게 됐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제주대학교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우선 지난번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학내 분위기를 화합적으로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국립대학 법인화, 대학 간의 무한경쟁, 원직과 기층이 무너진 대학운영과 구성원의 신뢰감 상실 등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거센 파고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주대는 이런 문제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동력과 지향점을 잃고 표류하고 있고, 외형적 성장에 집착해 질적 향상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우선 장기적으로 연구 및 교육 여건 개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기반이 확충돼야 하는데, 이점에서는 지방대학으로서 열악한 환경임을 틀림없다. 그리고 우수 신입생 유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국에 우수한 학생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중심대학으로 육성시켜 나가겠다.”

-대학재정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 발전기금 등 재원 마련도 큰 과제일 텐데

“발전기금 모금이 중요한 이유는 한정된 정부지원금과 기성회비만으로는 건물신축이나 교수 및 연구진의 총원, 기자재 확보 등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기 내 5백억의 발전기금 시대를 열고 제주대가 보유했던 관리부지를 국가로부터 환수받겠다. 발전기금을 모으는데 발바닥의 땅이 마르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가 이미 서 있다.

대학재정확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기술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설립하겠다. 이를 통해 매년 50억원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교수님들의 지적 재산권을 바탕으로 국내의 기업회사들이 자본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지난 2년간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준비해왔고, 이미 9개 기업이 출자양해 서약을 보냈다. 국내 대학에서 이미 출범해 많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정부 및 중앙 네트워크가 탄탄하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현재 서울대학교 총동장회 및 법대동창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제주지부 총동장회 회장을 맡고 있다. 친구와 대학 동기들이 통일부 장관,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청와대 비서관, 국회 상임위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국제법평론회와 영남국제법학회의 회장 및 대한국제법학회 차기회장 역할을 통해 학회 회원으로부터 신뢰와 협조를 받아왔다. 외교통상부의 국제법 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 위원, 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위원직을 수행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물론 유관 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 및 거점국립대학 기획처장 협의회장을 역임하고 당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던 대학의 개방 및 혁신화 방안에 관하여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활약을 통해 교과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의 협이나 만남을 통해서 맺어진 인연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점을 인정해 해주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생겼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다. 90년대 중반 세계화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을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법제로 만드는 데 직접 참여했고, 특별자치도 출범에 이르기까지 같이 일을 해온 분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협력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대학 발전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해왔고, 성과는

“보직을 역임하는 동안, 대학의 비전과 발전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비리사업에 지원 신청한 5개 과제 사업비 80억원 모두가 선정되도록 하고 ITRC, DCRC 등의 연구센터를 유치하

는 등 각종 학술 사업 및 교육역량의 강화를 위한 재정 유치가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 교수협의회와 평의위원회의 통합 및 학칙기구의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해결하고 학칙상 교수회 및 평의회를 제도화함으로써 학내 갈등을 잠재웠다.

아울러 발전기금재단의 상임이사로서 발전기금 유치에 힘을 쏟고, 나아가서 적극적인 수익성 창출을 위해 골프아카데미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발전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학 행정을 경험하면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며 우리 대학의 현안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소신은

“법인화에 반대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법인화 대비는 충분히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재정 확충을 위한 자체 수입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과거에 골프아카데미를 완성한 경험도 있다. 1년에 4억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100억 원의 발전기금 유치효과와 같다. 이같은 프로젝트를 3개만 만들어 낸다면 300억 발전기금을 유치한 효과가 있다. 당시에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수익을 창출하니까 불신은 없어졌다.

또 기획처장 당시 제주국제교류협회를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을 통해 완공한 바 있다. 이를 통해 1억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다. 이러한 수익사업을 직접 추진했었기 때문에 일부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학생들의 취업률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졸업생 취업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 이와 관련 다음트랙킹 프로그램 확대와 엑스트라형 커리큘럼을 더욱 확실하게 강화하겠다. 취업을 위해서는 전공지식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어학 능력에 있다고 본다.

학생들이 어학 능력 향상에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신입생들이 입학이전에 오리엔테이션부터 대학에 들어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입학하자마자 외국어 공부에 몰입해야 한다.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생들이 될 원하고 어떻게 대학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지도할 수 있게 한다면 현재의 유명무실한 지도교수제의 개선과도 연결된다고 본다.

학생들을 위해 대학 본부가 나서서 교수, 외부 인사들과 연결시켜주는 멘토링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현재 HR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일종의 자원봉사형태로 이뤄지면서 제주대 학생 25~30명 정도가 1년 과정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를 전 대학 차원으로 확대하겠다.”

정용복 대기자

〈중소기업인식개선 캠페인〉 글로컬 기업 도약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다음커뮤니케이션 제주시대 성공적 안착

제주대와 활발한 교류... 다음트랙 통해 연구지원과 장학금 전달



“옴대강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이구나. 훗훗한 힘이 되어 드리구나.”

다음의 제주 글로벌미디어센터의 상징인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이 다음의 제주공헌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하는 말이다. 위의 문구처럼, 다음은 제주이전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힘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대학과 함께하는 지역인재 육성, 지역사회공헌프로그램의 운영, 제주도 내의 학생들을 위한 견학프로그램 마련 등 다수의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며 윈윈효과를 내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조명한다. (편집자 주)

다음의 제주이전 과정은 2004년부터 6년째를 맞고 있다. 제주 이전 프로젝트는 제주도, 제주대와 맺은 협약을 시작으로 본격화 됐다. 2004년 4월 지능화연구소 팀에서 16명이 이주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 미디어본부가 제주로 이동을 하는 등 현재까지 제주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은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 200여명과 자회사인 (주)다음서비스 직원 300여명을 합쳐 총 500여명에 이른다.

다음이 제주로 지방이전을 진행한 이유는 다음의 기업 비전에 따른 창의성을 이루고자 선진적인 업무환경 조성에 있었다. 다음은 제주지역의 청정환경과 다양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고, 제주이전을 결정한 후 서울과 차별화된 근무환경을 만들어 갔다. 맑은 공기, 짙어진 출퇴근시간, 근무환경과 여가의 병행 등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레 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도 얻었다.

다음의 이전효과는 빛을 냈다. ‘미디어다움’, ‘아고라’, ‘블로거뉴스’, ‘tv팟’ 등의 2004년 이후 성공한 다음의 신규 서비스는 모두 제주에 있는 직원들이 개발해 낸 프로그램들이다. 기업 내부에서는 이렇게 이용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창의적인 근무공간에서 생겨난 생산성의 결과라고 풀이하고 있다. 제주의 친환경적인 환경에, 기업의 비전에 따른 창의성과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비즈니스 공

간 조성이 직원과 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는 평이다.

제주지역에 비교적 큰 규모인 다음기업의 이주는 지역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함께, 다음도 제주지역으로 이전과정을 거치며 다음의 기업문화와 제주의 문화가 서로 어우러질 방향들을 계속해서 모색했다. 그 결과 현재는 다음과 지역이 시너지 효과를 낼 다양한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부분으로는 제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음의 글로벌미디어센터 방문프로그램 운영이 눈에 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의 기업환경을 알리고, UCC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지역민들의 호응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도 알려져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공헌사업으로서 네티즌들이 직접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사연을 올리고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하는 돌하르방’도 운영하고 있다. 다음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은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의 사연을 받고, 후원대상을 선정한다. 어려운 가정형편의 장애인이나, 청소년가장,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농어촌지역 어르신들 등의 이웃들을 지원하며, 지역 학생들의 교육 부분 등을 후원하기도 한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과 함께 깨끗한 정보세상 퀵대회를 열었다. 제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

으로 인터넷 정보의 건전한 활용과 청소년에 유해한 게임중독, 음란정보 및 사이버 폭력 등의 불건전 정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전한 사이버 마인드 확산과 문화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다음은 기업의 이전을 진행하며 중요 부분으로 지역인재의 육성을 꼽았다. 다음은 제주대와 산학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IT산업 인재를 키우고자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역인재의 육성을 폈었다. 다음은 제주대와 산학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IT산업 인재를 키우고자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역인재의 육성을 폈었다. 다음은 제주대와 산학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IT산업 인재를 키우고자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역인재의 육성을 폈었다.

그렇지만 다음이 처음부터 성공적인 산학협력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다. 2004년 다음은 제주대의 첨단관광정보시스템 인력양성사업단에 참여하며, 산학협력을 모색했다. 그렇지만 다음의 이전이 안정화되지 못했던 상황과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의 경험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5년으로 계획된 사업은 1년여 만에 중단되고 말았다.

그 후, 2006년 다음의 제주이전이 안정화 되고 대학과의 교류가 중요시 되면서, 별다른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도 자발적인 산학협력의 과정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2007년도에는 제주대에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신청됐고, 이를 중심으로 다음트랙이라는 인터넷 산업 최초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과정의 탄생했다.

다음트랙은 인터넷 포털 산업에 맞춰 개발된 교과과정을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트랙은 다음의 임직원의 직접 강의와 현장실습, 그리고 인턴십 등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트랙에 참여하고 있는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매년 2천만원의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트랙 신설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된 개발자 공개에서 제주대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 2007년도에는 컴퓨터공학과 학생 4명이, 지난 1월에도 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다음은 다음트랙 외에도 제주대가 주관하는 IT산업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해 왔으며, 올해는 MICE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MICE사업단과 함께 다음의 모바일 서비스 기획 및 개발팀장들이 강사로 참여한 ‘제1회 MICE 정보시스템 세미나’를 공동개최해 제주대 학생 및 지역의 IT기업인들에게 최신 인터넷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다음은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과 대학이 만족하는 산학협력이 되도록 장기적인 관점으로 산학협력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다음트랙 외에도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서 자작만 꾸준히 인터넷 서비스 및 기술 동향을 나눌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는 등 대학과 학생과 소통하는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2011년 이후 다음은 제주대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할 예정이다. 제주지역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표방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를 기반으로 제주대와 좀 더 발전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최정혜 대외협력과 과장은 “산학협력은 단기간내에 성과를 내기 어렵기에 안정성과 지속성에 초점을 두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라며 “규모 등 산술적이거나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기 보다는 기존의 협력사실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한해 두해 경험을 축적해 나가면서 양측의 관계자들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다음 단계의 발전방안을 자연스럽게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중건 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 입사한 황현석 동문

“다양한 경험은 젊음의 특권”

전문지식은 물론 겸손해야

“자신이 정한 목표에 가이드라인을 짜고, 기회를 잡기 위해 평소부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늘구멍 취업난에도 아랑곳 않고, 다음커뮤니케이션에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당당히 입사한 황현석(컴퓨터공학 00학번) 동문. 그는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을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목표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에 진학한 후, 처음 운영되는 다음트랙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황 동문은 처음 시행되는 과정이라 망설임도 있었지만, 기회라 여긴 후부터는 자신의 열정을 모두 쏟았다. 다음트랙은 참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정원을 둔다거나 가산점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총 8개의 트랙 과정 속의 교과목에 참여하며 기업에서 현재 실무를 맡고 있는 임원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배워갈 수 있다. 그는 트랙에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업무를 몸으로 직접 느끼고 기업이 정말 원하는 능력과 기술, 마음가짐 등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됐다.

“트랙에 참여하며 다음이라는 기업의 코드가 저에게 잘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 기업에 입사를 마음먹고 난 후부터는 필요한 사항들을 맞춰 나가는 타겟팅 전략으로 입사를 준비했어요.”

그는 트랙과정과 인턴 등을 거치며 현업 임원들의 눈에 띄기 위한 행동들을 보이는 등 누구보다 열심히 입사를 준비했다. 그는 트랙과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는 인턴과정을 밟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에는 공개채용에 합격했다.

황 동문은 입사한 후 현재 다음 사이트 내의 한 게시판의 개발과 유지, 보수의 서비스를 맡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와 관련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는 그는 만족스러운 직원복지 환경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맡겨 해나가는 것에 현재 가장 큰 보람을 가진다고 전한다. 일의

경우에도 프로젝트 등에만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유연하게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입사 후 현재까지 항상 매력적인 기업이라 느껴요. 대단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분들과 일을 하고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으며 기업의 자유로운 환경과 뛰어난 기술력, 성장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기업에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너무 학교 공부에만 매진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전한다. 현업과 학교 수업상의 괴리가 분명 존재하며, 이를 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이 자신의 주관을 가지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액티브하고 매력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 이것이 현재 다음이라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기업이 신입사원에게 모든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을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필요로 하는 스킬의 기본기를 갖추고 자신이 될성품은 나무의 뿌리와 같은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중건 기자



박중건 기자

지면으로 보는 취업특강

“기업들은 준비된 인재를 원한다”

입사서류의 열쇠는 ‘자기소개’와 ‘입사 후 포부’

지원자의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력서. 2009년 하반기 기업의 공채 모집이 저물어 가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 밤낮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업체에서는 어떤 지원자의 입사서류를 합격점으로 여겨 채용하게 되는 것일까. 한 인사담당자는 “서류 특히 자기소개서는 회사에 따라, 지원 분야에 따라 그 판단의 기준이 매우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연구와 준비가 지원하고 하는 회사와 분야의 특성을 알게 해줍니다.”라고 말한다. 특성을 알게 되면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야 할지는 즉시 답이 나온다는 것이다. 입사서류는 면접을 보기 위한 도구이다. 입사서류를 작성하기 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비전과 사업내용을 가지고 운영되는지,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인식하고, 자신의 강점과 지원동기를 분명히 작성함으로써

자신이 준비된 인재임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얼마전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이력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제주대 1만 학우 중 120여명이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이력서를 맡겨 뽑힐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중 네이버 검색에 자신의 이름을 치면 이력사항 및 자기소개가 표현되는 것처럼 꾸민 이력서가 눈에 띄었다. 경진대회 특성상 창의적 아이디어로 표현되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독창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고 준비된 인재임을 표현하였기에 기업체 인사담당자는 면접을 통해 지원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인력 채용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많은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의 중요성을 말한다. 기업체에 적합한 인재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면서 발전가능성, 업무지식,

자기감, 발표의 논리성 등을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체크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최고의 인재를 선호하기보다는 우리 기업에 적합한 인재인가의 여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건이 우수하다고 하여 반드시 합격하지는 않는다.

취업준비생들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인사담당자들은 “기업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지원회사 또는 지원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며, 먼저 채용정보를 수시로 파악해야 하고 기업체 홈페이지에 기재된 인재상 및 직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성격 및 경력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전공에 대한 자격증과 글로벌 인재에 맞는 어학실력과 전문지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된 삼성생명은 알바도 계열사에서’의 경우처럼 준비된 지원자라는 느낌을 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아리활동, 어학연수, 아르바이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표현함으로써 준비된 인재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을 채용함에 있어 ‘경력자 같은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희망한다. 기업은 IMF 외환 위기 이후 감원을 위해 대거 해고, 권고사직 등을 통해 기존 인원을 축소한지가 10년이 지났다. 더 이상 공채를 통해 대규모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다. 수시 모집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 헤드헌터 등을 통해 필요시 인원을 충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신입으로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하기에 학생들은 학창시절 동안 사회경험을 통해 경력을 쌓고, 어학능력을 기르고, 전공에 대한 지식을 쌓아서

준비된 인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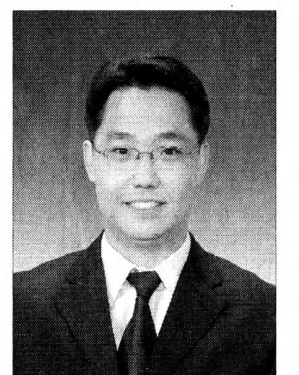
‘기업이 원하는 입사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

대부분의 기업체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이메일로 이력서를 받고 있기에, 좋은 입사서류는 그 회사의 서류에 맞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함에 있어 크게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및 경력사항, 입사지원 동기 및 포부로 나눌 수 있다.

‘성장과정’의 작성은 특별한 에피소드를 기재하여 자신의 독창성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지원 분야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어릴 때부터 보유하고 있었다면 작성하는 것이 좋다. ‘성격의 장단점’의 작성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 작성 시에는 극복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기재하고 성과를 낸 부분에 있어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창시절 및 경력사항’의 작성은 가장 부각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이러한 경험이 지원하는 분야에 준비된 인재라는 부분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실재사례를 통해 내용 요약, 어떤 역경을 겪었는지, 차별적 열정과 독창성이 무엇인지, 성과적 결과를 수치적 표현으로 작성해야 한다. ‘입사지원동기 및 포부’를 작성 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에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하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앞서 작성되어진 성격 및 경력사항을 통해 준비된 인재임을 표현’을 통해 인사담당자가 ‘이 지원자를 면접을 통해 만나고 싶다’는 맘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다.

입사서류의 주요 기능은 면접을 보기 위해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도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면접의 기회를 찾고 싶다면, 학창시절 동안 준비한 스펙과 사회적 경험을 나만의 중심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충분한 가치를 지원하는 회사의 인재상에 맞추어 표현하여 작성할 때 면접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박진배

직업능력개발원 취업컨설턴트

무론유설

인간과 반려동물



정종대 수의학과 교수

서울에서 개업하고 있던 거의 20여년 전의 일로 기억된다. 점심 시간 즈음이었는데 50대 중반정도 되던 어떤 아저씨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병원에 들렀다. 그 당시에 그 시간이면 대부분이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사람은 주로 주부들이었기에 오히려 내가 궁금하여 어찌 바쁜 직장 시간을 쪼개어 아픈 개를 몸소 데리고 병원에 방문하셨는가 하고 질문하였다. “술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마누라는 잔소리하고, 자식들도 자기를 공부하랴, 반기는 사람하나 없지만, 이 개는 골목 귀퉁이에 들어서기만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반갑게 ‘껌껌’ 짖어대면서 대문을 열고

들어와 쓰다듬어주고 집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항상 변함없이 반겨주기에 나는 이 개가 우리 식구들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술을 먹고 들어오면, 맨 정신으로 들어오던 애는 늘 나를 반겨줍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아픈 동물을 치료해주면서 동물에게 헌신적인 경우를 많이 봐오지만 아직도 그 아저씨가 기억에 오래 남아 있다. 현대의 핵가족화에 식구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중년의 쓸쓸한 일면이라는 생각도 들게 된다.

식구들과 같이 지내는 동물을 우리는 애완동물이라고 불렀다. 원래 애완동물(愛玩動物)의 사전적인 의미는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다루거나 보며 즐기는 동물을 뜻한다.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심포지엄에서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애완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더 부하랴, 반기는 사람하나 없지만, 이 개는 골목 귀퉁이에 들어서기만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반갑게 ‘껌껌’ 짖어대면서 대문을 열고

동물에게 피동적인 의미에서 능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일방적인 형태에서 양방향적인 형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이 어색하다고 생각되지만, 우리는 배후자를 ‘인생의 반려자’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그런 의미로 격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의 대부분이 개가 차지하고 있다. 개는 특성상 무리지어 사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즉, 서열이 있고 철저하게 서열에 의하여 역할이 나누어지게 된다. 일단 강아지 때 분양받아서 한 식구 내에 속하게 되면 자기보다 높은 서열의 식구들에게는 충성하고, 집단 내에서 서로 장난치며 놀기 좋아하고 또한 자기 집단(식구)을 보호하려는 본성을 가진다.

어떤 집에서는 강아지 때부터 교육을 잘못시켜서 식구들 중에서 서열이 가장 높는데 올라 있는 경우도 가끔씩 볼 때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집의 식구들 중에 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반려동물(伴侶動物; companion animal)이라고 개칭하여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즉, 우리와 함께 지내는

이 서열을 뺏기기 쉬운데, 개에게 주기적으로 음식을 주거나 같이 놀아주면서 모든 주도권을 사람이 갖도록 해야 한다. 목줄을 매서 걸어다닐 때 사람보다 앞서서 걸어가지 못하도록(개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절대 좋지 못하다) 처음부터 훈련시키고 적어도 ‘앉아, 엎드려, 기다려’와 같은 간단한 훈련을 먹이를 매개로 하여 반복시켜 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쉽게 모면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가족의 구성원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 식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에 따른 의무도 생기게 된다. 즉, 인간보다 수명이 짧기에 어쩌면 생로병사까지도 책임을 져야한다. 간혹 집의 어린이가 개의 생로병사를 빨리 경험함으로써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시간을 두고 본다면 인생경험을 대신 겪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요즘은 이런 의무를 저버리며 길거리에 반려동물을 내다 버리는 경우를 보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경우를 보면서 씁쓸한 생각이 든다.

돌하르방

최고의 행정서비스는 친절이다

취재를 하다보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정말 친절하다는 것을 느낀다. 주로 기사자료를 받거나 대학 운영상 궁금한 점들을 묻는데, 경청하는 자세로 취재를 돕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은 기자에게만 보여주는 모습들일까. 이런 체험과는 다르게 학내에서는 직원들의 불친절함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얼마 전 대학 본부의 기관에 대한 지역민과 학생들의 글이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적이 있었다.

대학의 모 부서가 행사를 치르며 운영상 급한 문제로 구두의 약속을 했으나, 이행하지도 않고 매우 불쾌한 태도를 취했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또 다른 글에서는 학생이 행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학생은 개인의 사정으로 등록금 분할 납부기간을 넘기자 직원이 이를 알려왔다고 말했다. 학생은 전화를 통해 직원분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등록시기를 놓친 사정을 이야기 했음에도 ‘왜 그랬느냐’, ‘제적을 당할 것이냐’ 등의 심한 질책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에 대한 어느 한 직원의 속마음을 전해들은 적이 있다. 학생들에게는 좀 무심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생개인의 의견들을 모두 수렴하기 어렵기에 이는 너무 사소한 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

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그 직원에게 학생은 교육수혜자로서의 학생이 아닌 가르쳐야 할 학생인 것일까. 아마 교육기관에 재직한다는 이유로 역할을 망각한 것은 아닐까.

제주대학교의 행정서비스 현장에 따르면 교직원들은 모든 교육수요자가 친절·신속·정확하게 대 학행정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나와 있다. 또 행정서비스 이행 표준에는 직원들이 민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직원들에게

이런 규정을 완전히 수행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 서로를 배려하는 기본과 과정만 지켜진다고 해도 매해 반복되는 행정의 불만과 불평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받는 직원들은 아마도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대학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직원들이 더 많다. 그러나 일부 직원의 잘못된 행동들이 제주대학교 전체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본질적으로 진정성의 문제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지 않나 싶다. 우리의 학교라 여기는 진정한 마음으로 일을 맡고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박준권 편집장

사설

새 총장과 함께 하는 이보전진

엊그제 총장후보 등록이 끝났고, 이제 한 주일 지나면 새 총장이 선출된다. 지난 1년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기에 이번 재선거는 차분하게 치러지고 있다는 인상이다. 총장 후보들이야 물밑으로 뜨겁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우리 제주대 가족들은 누가 총장이 되든 이번 총장은 화합된 제주대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중동의 모습이다.

2009년 12월 1일은 지난 1년간 힘겨루기에 쏟았던 에너지와 열정을 한 데 모아 제주대 발전을 기약해 나갈 준비의 시기이다. 어찌 보면 2009년 한 해는 제주대의 선장이 부재한 가운데 통상적인 학교 운영으로 만족해야 했던 일보 후퇴 내지는 정지 시기이다. 그러나 일보후퇴가 이보전진을 위한 산고의 시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주대 가족들의 삼기일진이 요구되고 있다. 새 총장과 함께 제주대의 비전을 다듬고 우리의 역량을 재충전해 나가는 이번 12월은 그래서 이보전진으로 도약해 나가는 발판 닦기의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대를 사랑하고 제주대에 기대를 거는 도민들이 참 많다. 이는 아마도 제주대가 제주에서 유일의 종합대학이기 때문일 것이다. 실망하고 기분이 상해도 어찌하겠나. 도민들로서는 때때마다 혼을 내고 짜증도 부리지만, 그게 다 미우나 고우나 제주대와 함께 살아가야 할 도민들의 애정 표시이다. 제주대 가족들은 이런 도민의 사랑에 보답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제주대와 도민들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 나누기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12월 한 달 동안 선출된 총장과 함께 제주대 가족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역시 ‘제주대학은 다르구나’의 본을 보여 주는 데 있다. 서로 누가 더 제주대를 사랑하는가의 애정 겨루기가 끝나면, 승자도 패자도 없이 서로 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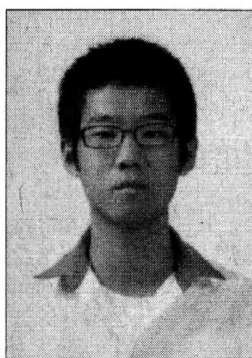
잡고 힘을 모아나가는 화합이 그것이다. 그 화합은 패자는 물론이고 냉소하고 방관했던 사람들까지 아우르는 참여의 증진에서 올 것이다. 제주대 구성원 각각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로 존중하고 살려나가는 역량 모아 나가기가 바로 화합 총장이 역점을 두어야 할 첫 시작일 것이다.

대학 밖의 권력정치는 통상 승자독식으로 얼룩져 있다. 인구 4,500만의 한국과 인구 55만의 제주에서는 선거 결과의 승자독식으로 시민 역량의 반을 배제해 버리는 우를 범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렇게 인구의 반을 따돌리고 방관자가 되도록 하는 경영 방식으로는 세계자본주의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 화합 제주대가 이보전진이 가능한 수 있는 토대는 바로 이와 같은 권력정치의 승자독식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다. 제주대 구성원 누구도 배제됨이 없이 각자에게 역할과 직무를 맡김으로써 제주대가 명실상부하게 제주 최대의 싱크탱크로서의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2010년 이후 바로 화합 총장이 이끌어 나가는 제주대의 미래 비전이 아닐까.

한 1년 원만크이나 할 일도 많을 것이다. 한 1년 쉬었으니 이제 좀 더 바쁘게 그리고 좀 더 치열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주대 가족들의 마음과 생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도민들의 안타까운 심려 표출을 염두에 두면서, 제주대와 제주도민들과의 소통과 교환관계를 어떻게 한 단계 증진시켜 나갈 것인가. 12월 한 달 내 머리 짜대기와 함께 가슴 맞대기가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아탑 논리와 안주로는 결코 제주대의 미래가 없다. 울타리를 헐고 도민과 함께 하고 세계와 같이 호흡하는 것이 요구된다. 화합 총장과 함께 도민과 손잡고 세계로 이보전진해 나가는 제주대 가족 모두의 분발이 기대된다.

독자기고

‘뭘, 어때’ 청소년 불감증 도를 넘어



백종수 수학 1

한 10대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처벌을 내리기에 이미 공소시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의 동영상으로 ‘초딩 뉘기’라는 말의 동영상도 있다. 인터넷에서 초등학교생과 인간행위를 하던 10대 청소년이 마지막 세 번째 아이가 넘어려고 등에 손을 짚는 순간 내려앉았다. 이런면 넘고 있던 초등학교생은 그대로 아스팔트 도로위에 머리부터 떨어지게 된다. 주변에 있던 초등학교생 친구들은 친구에게 괜찮으냐고 물어본다.

이런 동영상은 인터넷에 올라오는 현상을 사회는 10대 청소년들의 일탈현상으로 본다. 10대 청소년들은 자기 주변에 걸쳐져 넘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이런 동영상을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는다.

동영상 뿐만이 아니다. 최근 국민들의 불안을 안고 있는 신

종플루 괴담을 유포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보고 반성을 해야 될 청소년들이나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동영상을 즐겨 보고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려놓곤 한다.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합성해서 초등학교생들을 놀림감으로 만든다. 그러고서는 댓글로 재미있다. 이런 식의 글을 남긴다.

이런 우리들의 의식이 청소년들에게 일탈 현상을 제공하는 발미를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범위까지 적극적으로 무서워졌다.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심해져서 타인에게 깊은 피해를 입히기 전에 청소년 선도기관이나 사법기관이 힘을 모아 더 적극적으로 심해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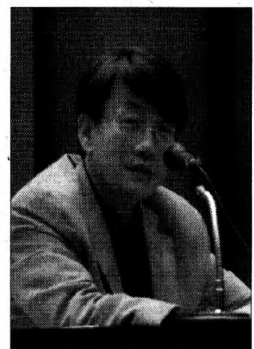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쓴 글을 여문면에 게재하고, 독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 바라는 점이나 제주대신문을 읽고 난 후 느낀점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및 계좌번호를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754-2279, press@jejunu.ac.kr
홈페이지 <http://www.cnpupress.com>



손석희 교수

“토론 잘하고 싶다면 남의 말을 정확히 듣는 습관부터 길러라.”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는 ‘우리 사회와 토론문화’를 주제로 지난 달 27일 아라무즈홀에서 열린 학술행사에서 “말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라며 “아무리 말을 잘하고 어휘력이 있어도 자기주장만 내세운다면 남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토론 분위기도 망치게 된다. 잘 듣는 훈련부터 차근차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깔끔한 진행과 날카로운 언변을 바탕으로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MBC TV ‘100분 토론’ 등 전문 시사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했다.

그는 토론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바람직한 토론은 3박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자기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엔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하죠. 논의를 통해 잘 맞닥뜨리기까지 논리를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손 교수는 “‘정숙’이란 표어를 보고,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라서인지 토론을 잘 안 하려하고,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생각해 끼리는 분들도 많다”면서 “토론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객관적 정보를 통해 합리적 근거를 잘 이끌어 내는 것이 기본적 요소”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우리사회 토론문화가 성숙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 토론에 임하는 분들이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불신 같

은 노이즈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며 “찬반 또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집단의 대표 격의 토론자가 나서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해 있는 집단의 공감을 강화시키고자만 한다”고 꼬집었다.

손 교수는 “100분 토론을 진행한 8년의 시간이 한국 토론문화의 성숙을 위한 도전의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토론이야말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학습하는 장이라 믿기에 양쪽 패벌들이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뒀었다”는 그는 “토론 사회화는 적절히 불을 지르는 방화자나 반대로 소방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제작진은 시청률을 의식해서인지 기계적 형평을 내세워 너무 개입을 안 한 소”라고 덧붙였다.

그는 “토론 제작진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 사람은 토론 나오려는 사람과 안 나오려는 사람으로 나뉜다. 우리 사회 토론문화의 미성

숙은 우선 토론을 잘 안 하려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토론을 이기고 지는 문제로 생각해 끼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토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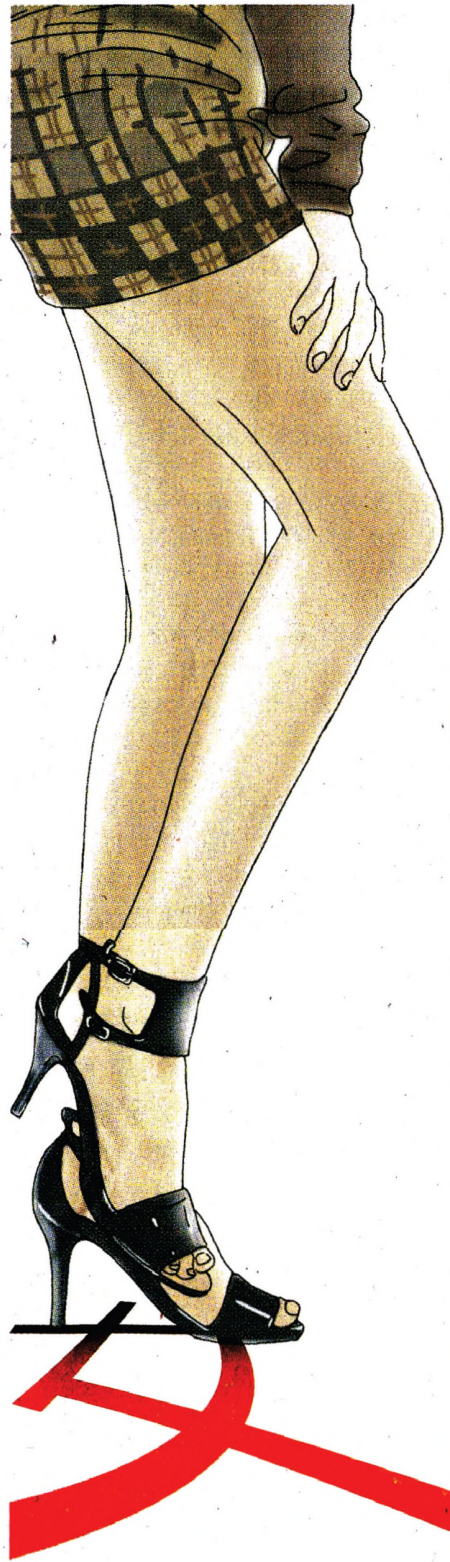
손 교수는 TV토론이 양적으로 늘어난 반면, 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평가에는 “토론을 통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는 계몽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면서 “하지만 판단은 시청자의 몫이고, 결론이 굳이 필요 없는 주제도 있다. 또 TV토론에 힘입어 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토론문화가 활성화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론을 폈다.

그는 “화제의 인물과의 인터뷰로 진행되는 ‘시선집중’이 토론 진행에 큰 도움이 되지만, 첨예한 쟁점에 대해서는 사전자료수집이 중요하다”면서 “저 자신도 토론을 즐기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준비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정용복 대기자

하이힐, 스키니진 등 패션과 건강의 관계

하이힐 · 스키니진 보기는 좋은데 건강엔 악영향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이 자신의 머리를 꾸미기 위해 엄청난 무게의 '가채머리(머리술이 많아 보이기 위해 머리 주위를 빙빙 두르며 쌓은 머리)'를 하고 다녔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사소절 복식편을 보면 조선시대 어느 부자집 며느리가 높고 무거운 가채를 했다가 목뼈가 부러져 목숨을 잃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이다.

요즘도 마찬가지다. 최근 유행하는 패션을 보면 우리의 몸에 폐(弊)가 되는 것들이 많다. 패션이 아니라 폐(弊)적인 것이다. 10cm가 넘는 굽으로 여성의 발을 죽이는 킬힐(kill heel)에서부터 일명 '소시지 패션(소녀시대 gee 패션)'이라 불리는 스키니진까지. 우리의 몸에 폐가 되는 패션은 의외로 많다. 잘 모르고 패션만 추구하다가 가채머리 때문에 목뼈가 부러졌다는 여성처럼 위험한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 몸에 폐를 끼치는 패션을 알아보자.

발을 죽이는 킬힐(kill heel)과 키높이 깔창

하이힐의 굽 높이는 여성의 자존심과 비례한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하이힐보다도 더 높은 굽을 자랑하는 '킬힐'이 유행이다. 10cm가 넘는 굽의 킬힐은 스타일을 좀 안다는 여성들에게는 꽤 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되고 있다. 강지혜(무역 1) 씨는 "높은 신발을 신으면 발이 아파서 고생하기는 하지만 몸매가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애용하고 있다"며 "길을 지나가다 보면 킬힐을 신은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요즘엔 유행"이라고 말했다.

이는 남성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모 TV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 출연자가 "키가 작은 남자는 루저(Loser)"라는 말을 하며 구설수에 올랐다. 키 하나만으로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를 가르는 것은 조금 무리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여성들이 남성을 만날 때 '키'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에 남성들은 높은 킬힐 자랑하기 위해 '키높이 깔창'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아이템이 발에 미치는 악영향은 어마어마하다. 더군다나 제주대 캠퍼스는 높은 경사의 지형이 많다. 신발

의 각도에 경사까지 더해져 학생들의 발 건강은 위협 요소를 안고 있다.

스타일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무리한 신발을 신는 것은 우리 발에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이힐이나 킬힐은 특히 앞부분이 좁으므로 발을 조이게 된다. 또한 뒷굽이 높은 신발을 신으면 발의 앞부분에 높은 압력이 가해지게 되고 발가락 관절의 변형을 일으켜 여러 가지 족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치우치게 변형되는 '족부지 외반증'이 있다. 신성진(의학과) 교수는 "동양인에게 족부지 외반증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서양식으로 굽이 있고 뾰족한 신발을 신으면서 점차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 하이힐만을 고집한다거나 오랜 시간 동안 신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강하고 예쁜 발을 위해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은 날이라면 꼭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잊지 말자. 하루 종일 앞쪽으로 힘이 쏠려 고생했을 발을 풀어줘야 한다. 우선 손가락을 사용해 발가락들을 자신 쪽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긴다. 이 스트레칭을 10초 동안 2~3회 반복하면 발바닥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발의 안쪽 측면을 위 아래로 마사지 해 주는 것도 좋다.

꼭 조이는 스키니진에 다리는 숨막혀...

몸에 딱 붙게 입는 바지인 스키니진. 각선미를 살려주고 두꺼운 다리도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남녀 모두에게 각광받는 패션이다. 특히 최근에는 가수 소녀시대가 다양한 색의 스키니진을 입고 'gee'라는 노래를 불러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에 스키니진은 일명 '소시지 패션(소녀시대 gee 패션)'이라 불리며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을 법한 옷으로 자리 잡았다.

스키니진은 다리의 곡선을 고스란히 나타내기 위해 몸에 딱 달라붙게 입어야 한다. 덕분에 스타일은 살지만 우리들의 다리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고통 받게 된다. 혈액순환이 방해받게 되면 소화 불량, 변비, 생리불순이 생길 수 있고 생리통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특히 혈액순환 장애가 심각해지면 '하지정맥류'에 걸릴 수 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면 정맥혈관이 늘어져서 생기는 질환이다. 다리에 꼬불꼬불하고 두꺼워진 정맥이 피부에 나타나는 일종의 '혈관 기형'이다. 초기에는 걷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다리가 무거워지고 붓거나 저리게 된다. 나중에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다.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스키니진처럼 딱 붙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가끔씩 다리를 구부렸다가 펴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며,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스키니진을 입은 날에는 잠들기 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자보자. 혈액순환을 도와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다. 단, 심장보다 약간만 높게 해야 한다. 너무 무리하게 다리를 높이면 허리나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다.

허리가 자주 아프다면? 미니스커트 때문은 아닐지...

요즘에는 빼빼 마른 다리 보다 건강미 넘치는 다리가 아름답게 여겨지고 있다. 이에 많은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로 자신의 건강미를 뽐내지만 알고 보면 미니스커트는 건강에 최악인 아이템이다. 특히 추운 겨울에 입는 미니스커트는 여성의 하체를 차갑게 해서 자궁의 혈관이 수축돼 생리통을 악화시킬 수 있다.

혹시 미니스커트를 즐겨입는 여성 중에 허리가 자주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한요통(寒腰痛)'을 의심해볼 수 있다. 한요통은 허리근육이 차가워지고 굳어져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통증이 생기는 병이다. 미니스커트로 인한 하체의 체온저하는 근육과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 한요통을 부르기 쉽다.

한요통은 따뜻한 곳에 있으면 일시적으로 아픔이 줄어들다가도 추운 곳으로 가게 되면 다시 심해진다. 그러므로 한요통을 막기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외출 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온찜질로 허리를 달래 주자. 단, 목욕을 할 때에는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것은 피해야 한다. 더운물로 찜구멍을 잔뜩 열어놓은 다음 냉탕에 들어가면 한기가 그대로 뼈 속까지 들어가 한요통이 악화될 수 있다.

고용희 기자

한해를 보내며 생각한다

"신종플루 방지에 동참해 줘 감사"



조매경 건강증진센터 간호주사

최근 전국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했다. 건강증진센터에서 일하며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모로 힘을 쏟았는데, 구성원 수에 비해 학내 확진 환자 수가 적게 나타났다. 구성원 모두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예방 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이다. 내년에는 전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존경받는 교사되기 위해 최선"

이번에 일어일문학과에서 국어교육과로 전과를 했다. 올해는 과제 등 학업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이번 겨울방학을 발판으로 삼아 더욱 성장하려고 한다. 내 꿈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만큼 방학동안 교육 봉사도 비롯해 꿈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다. 그리고 방학 중에 여행도 다녀올 예정이다.



이상우(국어교육 3) 학생

"학내 교통질서 유지에 동참을"



유영 교통관리

올해에는 학생들이 가차 출입증을 많이 가지고 다녀서 일을 하며 애로 사항이 많았다. 구성원들이 출선수범해서 학내 교통 규칙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늘 학생들을 자식같이 생각하며 일하고 있지만 서로 유대감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 내년에는 차량을 타고 학교에 들어오면서 모두 웃으며 인사할 수 있을 만큼 유대관계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미래 준비하는 학생될 터"

신입생으로서 생각보다 힘들게 한해를 보냈던 것 같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서귀포에서 통학하며 오전 수업을 들어야만 했다. 비록 힘이 들었던 해였지만, 내년에는 학점을 잘 챙기기고 학교 내에 있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볼 생각이다. 어렵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장학 제도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오수경(생물 1) 학생

영화, 세상을 만나다(4) - 가을 · 겨울 한국 영화들의 경향

난세 속 '리더'는 언제 나타날 것인가

혼란한 세상에 리더를 갈망하는 영화 관객들

'리더'의 부재를 탄탄하기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올해 초부터 사망소식이 이어졌던 '리더'들에 대한 향수(노무현 대통령, 마이클잭슨, 김대중 대통령 등)일까.

여름 블록버스터 영화 시즌이 마감하고, 한해를 정리하며 우울한 감정이 심신을 혼란케 하는 가을 · 겨울 영화시즌을 맞았다. 이미 개봉한 영화와 앞으로 개봉예정인 영화를 본다면 관객들은 시대를 구원할 영웅과 리더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가 난세임을 알겠는데, 과연 언제 이 난세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며, 빠져나가게 할 영웅은 누구냐는 물음이다. 애타게 찾고 있는 몸부림과 아우성이 극장안에 가득하다.

올해 한국영화 키워드 '난세'와 '리더'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를 요약하는 단어는 '난세'일 것이다. 올해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은 대표 영화들은 '난세'에 휩싸인 한국사회를 여실히 드러냈다.

봉준호 감독의 <마더>는 성역이던 한국사회 모성의 허울을 들춰내 현재 '난세'는 결코 모

성으로 해결될 '감상적인 수준이 아님을 알렸다. 윤재균 감독의 <해운대>는 제대로 난세를 상업적으로 활용한 결과다. 이미 상상에 더 큰 상실(쓰나미)을 덧붙여 관객들의 상실감을 현실이 아닌 '판타지'로 둔갑시켰다. 김용화 감독의 <국가대표> 또한 스키점프 대표팀들의 고군분투 뒤에 정치권력으로 꿈과 정체성을 위협받아 이미 피로에 찌든 한국사회의 청춘들의 군상을 담아냈다.

'난세' 속에 관객들은 난세를 해결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었다. 그 욕망은 '리더'에 대한 갈망과 향수'로 이어졌다. 관객들이 지지한 몇 영화에 욕망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가 <김종을 들다>와 <애자>다.

시골여중 여도부보 소재로 삼은 영화에서 극중 주인공인 이지봉(이범수 역)은 난세 속에 우뚝 솟은 '리더'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여도부와 여도부원들을 전국 수준으로 일으켜 세운 이지봉 감독의 열정과 투혼은 관객들에게 이 시대 '리더의 부재'를 더욱 실감케 한다.

여기에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억압에 의해 그의 리더적 역량을 인정받지 못하고 영화 결말 무렵 여도부원들에게 쏟는 열정을 모두 소진하

고 숨을 거두는 장면에서는故 노무현 대통령의 환영까지 비칠 정도다. 정기훈 감독의 <애자>는 직접적으로 리더(엄마)의 죽음을 통해 그동안 무시하고 아쉬움속에 떠나보냈던 이 시대 바깥에 머문 리더들의 존재감과 향수를 각성시킨다.

리더는 언제쯤 나타날 것인가

여름 시즌 '난세'를 직접 확인한 뒤 가을 · 겨울 시즌을 맞은 지금, 관객들은 본격적으로 난세를 해결할 '리더'를 찾아 나서게 된다. 시작은 <굿모닝 프레지던트>다. 한국대통령 세 명의 삶을 다룬 영화는 '리더'에 대한 판타지를 극대화한 결과다. 영화는 난세를 잠시 잊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는 리더의 판타지를 즐겨보라고 관객들에게 제안했다. 영화 속 대통령은 장진 감독이 빚어낸 허구적 '리더'다. 그럼에도 청와대 세트를 활용한 미장센과 결합하며 마치 내년이라도 실제 등장할 것 같은 현실성을 확보하게 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화 속에서 확인한 대통령과 한국사회는 장진 감독의 머릿속에서 그려진 세상이지 실제 난세



왼쪽부터 영화 <전우치>, <홍길동의 후예>, <굿모닝 프레지던트> 포스터.

에 처한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순재, 고두심도, 더구나 장동건 같은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번주 개봉한 정용기 감독의 <홍길동의 후예>는 어떤가. 이 역시 난세 속 '리더'와 '영웅'에 관한 이야기다. 불멸의 고전 허균의 <홍길동전>에서 모티브를 삼은 영화는 유토피아를 건설코자 한 홍길동을 현대에 빌려와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영화는 영웅 홍길동과 코미디 장르를 기반삼아 한국사회를 웃음으로 풍자하고픈 야심을 담았다. 일찌감치 관객들이 고민할 필요도 없는 영웅호걸의 대명사 '홍길동'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영화는 난세 속에서 이름 모르게 시민을 위해 활약하는 영웅의 출현을 판타지화한다. 재밌게도 이범수씨는 <김종을 들다>와 <홍길동의 후예>에서 모두 리더 역을 맡았다.

12월 말 개봉을 앞둔 최동훈 감독의 <전우치>

도 '리더'와 '영웅'의 연장선에 놓인 작품이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전우치> 또한 <홍길동의 후예>처럼 고전소설에서 모티브를 삼았다. <전우치>도 고전 속 영웅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요괴들에 맞서 활약을 펼치는 전우치의 활약을 그림 예정이다. 이 역시 세상을 어지럽히는 요괴같은 세력들에 맞서 싸울 영웅, 리더의 출현을 애타게 찾는 관객들의 욕망을 자극할 것이다.

욕망을 판타지로만 충족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현실로 만들 것인가. 판타지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내 · 외적 투쟁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투쟁도 힘겨운 난세 속 가을 · 겨울이다. 아마도 난세와 리더의 부재로 힘겨울 때마다 '영화' 진통제를 맞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은 현실일 뿐이니까.

이영운 특별기자